

: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정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교회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추석연휴 관계로 오늘 교회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 홍천 친환경 옥수수를 판매합니다.(1망 8000원) 감자 수확 후 재배한 마지막 옥수수입니다.

: 냉장고, 특히 냉동고에 너무 많은 음식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장을 보기 전 냉장고를 먼저 살펴주세요.

미 3:8-13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청년 중	청년 중

9월	1부 영접위원	홍성식 이유리		
	1부 헌금위원	권미정		
	2부 영접위원	하현철 송동준 강세기 한상균 이소애 정경례 한양미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안홍숙		

오늘 식당 봉사 : (없음)
다음 주 식당봉사 :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 (없음)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51-55세)
커피 판매 봉사 : 1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소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창조절 제3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주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온 국민이 모두 놀랐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처럼 늘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3,14a ..... 인도자

♣ 교 독 문 ..... 9. 시편 15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하현철 장로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211.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 다 함께

♣ 성경봉독 ..... 1. 인도자  
..... 11. 문홍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우리를 택하여 크신 일 이루소서 ..... 찬양대

찬양 드리세 하늘의 천사들아 영광 돌리세 땅위의 만민들아  
감사 드리세 교회의 성도들아 마음 합하여 주 이름 드높이세

## · 현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구재원	국지연	권혁순	박해경	김근종	정옥영	김나름	김남종	오복순	김대영
이효심	김병대	김용길	최영혜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지현	김해선
김해영 <sup>a</sup>	문금석	박기영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숙미	박재영	이현정	박정운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서원금	송인선	오슬기	우순덕	윤미경	윤정득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자영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임형욱	장혜정	정연경	정연희	정영례	정원석	김현영
주은경	최소라	고인성	최 숙	최옥자	한기택	한상경	한선희	허명선	허준호
홍성식	이유리								

### 감사현금

권혁래	김성우	박유경	김영란	김철수	유영남	박병구	김인순	박옥식	배삼순
서은혜	심해성	이순이	임승동	백혜숙	정원석	김현영	정진호	양순임	최형균
강경화	홍성식	이유리	강석준	무명14					

### 녹색꿈현금

김영호 김용길 최영혜 김정화 김해선 이은주 무명4

### 생일감사현금

권혁순 박석희 이왕준 무명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너무나 많은 것들

너무나 많은 공장/ 너무나 많은 음식  
 너무나 많은 맥주/ 너무나 많은 담배/  
 너무나 많은 철학/ 너무나 많은 주장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공간/ 너무나 부족한 나무  
 너무나 많은 경찰/ 너무나 많은 컴퓨터  
 너무나 많은 가전제품/ 너무나 많은 패지고기  
 회색 슬레이트 지붕들 아래  
 너무나 많은 커피/ 너무나 많은 담배연기  
 너무나 많은 복종/ 너무나 많은 욕심  
 너무나 많은 양복/ 너무나 많은 서류  
 너무나 많은 잡지  
 (중략)  
 지하철에 탄 너무나 많은/ 피곤한 얼굴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사과나무/ 너무나 부족한 잣나무  
 너무나 많은 살인/ 너무나 많은 학생폭력  
 너무나 많은 돈/ 너무나 많은 가난  
 너무나 많은 금속물질/ 너무나 많은 비만  
 너무나 많은 헛소리/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침묵

- 앨런 긴즈버그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영광 돌리세 땅위의 만물들이 찬양 드리세 영광 돌리세  
 어둠에 감싸여 해매던 한 민족 복음의 불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니 우리를 위하여 빛나게 하셨도다  
 한반도 기슭에서 우리를 부르사 태평양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새 나라 새 땅에 새 역사 이루려 우리를 택하여 보내어 주셨도다  
 찬양 드리세 하늘의 천사들이 영광 돌리세 땅위의 만물들이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은혜 내리사 이 땅의 새 삶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 경함께 하시니 우리를 택하여 보내어 주셨도다  
 찬양 드리세 하늘의 천사들이 영광 돌리세 땅위의 만민들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찬양	.....	인간의 노래	.....	하모니 동호회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사십시오. 우리의 삶이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사십시오. 자신과 세상에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며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다함께:	아멘. 자신과 세상에 실망한 채 말씀의 힘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드러내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김기석 목사

## 친구됨

[성서조선]지 발간이 어느덧 10년에 다다를 무렵(1930년대 중반), 김교신은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다. 한센병 환자들의 공간 소록도에서 보내온 문신활의 편지는 김교신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그의 인생에 큰 사건이었다.

문신활과 그의 동료들은 1932년 부산의 감만리나병원을 섬기던 손양원 전도사에게서 [성서조선]지를 소개받았다 했다.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해석을 재미나게, 희열에 넘쳐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서조선]지의 불순함을 지적하고 ‘이단’이라 폄박하는 무리들에 의해 손전도사님이 쫓겨나고 600여 명이나 되던 한센병 교우들도 이리저리 떨어져 나갔단다. 남은 5명. 돈 없고 반대에 부딪히는 고난 속에 [성서조선]지 한 권을 겨우 신청하여 읽던 심정을 문신활은 이렇게 적었다. ‘병원 뒷산 송목을 의지하여 은근히 모이어 읽을 때마다 씩어짐이 없는 진실한 부흥이 되었던이다.’ 이른 봄 소록도에서 온 소식을 받고 김교신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편집 조판까지 마친 후에 소록도 통신을 접하였다. 이것은 주필의 일생에 가장 큰 사변의 하나이다. 이 일을 지우들께 알리기를 지체할 수 없었다. 반도의 유위한 청년들이 복음을 요구하지 않고, 유리한 전도지를 교권자 제 씨가 강하게 독점하고자 할진대 우리는 애석할 것이 없이 퇴각하여 소록도의 5천 명 친구에게 가리라. 병자라야 의약이 필요하다.

문신활의 사연을 읽은 [성서조선]지 한 독자의 결심은 이러했다.

선생님, 진체 송금 3원 40전 하였습니다. 이는 생(生)의 지대 1년분과 소록도 문신활 형에게 보낼 지대 1년분이올시다. 75호 그의 논문을 보고 지대를 제가 담당함이 가함을 느꼈나이다. 이 일을 절대로 공개하지 마시고 또 위 문형 본인에게도 저의 이름을 교시(敎示)하지 마소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삶의 결단을 담은 편지들이 이어졌다.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이야기들부터 연말까지 계속된 소록도행 선물꾸러미까지... 그들은 이미 문신활의 ‘친구’였다. 남도 나도 ‘천형’이라 여기던 병을 얻는다는 것, 몸이 아픈 것도 감당키 어려운 지경인데 가족과 이웃, 살아갈 의미를 주고 힘을 주는 이들과 격리되어 외로운 영혼의 싸움까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문신활과 그의 동료들, 그들은 외딴 섬을 찾은 [성서조선]지를 통해 ‘친구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이들을 친구로 엮으신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즘 받는 편지마다 소록도 아니면 만주”라는 김교신은 문신활과 동료들의 편지를 읽고 서신으로 왕래하다 7월 26일자 일기에 그리 적고 있다. “그 중간 반도는 교권자와 신학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성서조선]지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 친구들을 향해, 즉 주변으로, 변방으로, 복음의 사자가 되어 달려가겠노라고.

실은 인간 문명이 지어져 온 이래 중심에는 산 신앙이 오래 버텨본 적이 없다. 행여 복음의 생명을 가슴 뜨겁게 체험했고 그 핵심 메시지를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인간 시스템의 심장부에 서면, 예수가 친구했던 이들과는 멀어지기 쉽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저 가난한 마음의 신앙고백이 터져 나온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문드러진 살, 쇠약해진 뼈...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온전히 ‘기쁨’으로 주께 내어놓고 천국을 사겠다는 것인가! 저런 친구들을 두고 어찌 중심을 향할까.

참으로 예수의 선언은 옳다. 가진 자는, 중심에 선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가장 멀다. 문신활의 사연이 담긴 [성서조선]지를 읽고서 “조선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려거든 저이 한 사람이면 만족 만족 대만족”이라고 고백했던 송두용처럼, 아마도 이때 김교신은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더욱 굳건히 했을 일이다. 주변에 서기로, 병자와 함께 하기로, 약하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기로... 그 결심대로 살다가 결국 그는 변방의 한 공장에서 병든 조선인 노동자들을 돌보다 그들의 친구로 죽었다.